

마음 열기

찬송가 93장을 함께 부르시다.

추석을 어떻게 보냈는지 간단히 나눠주세요.

말씀 나누기

마가복음 6장 47-52절, “예수님이 보고계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47-48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 가게 하셨습니다(45절). 이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던 중 노를 젓기가 힘들 정도로 심한 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47절). 그 때에 예수님은 홀로 물에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지만(46-47절), 영으로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48절a). 이처럼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사49:14-16).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고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며, 연약한 중에도 믿음을 쓰려고 애쓰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48절).

밤 사경(오전3~6시)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48절b).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48절c). 이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부르는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믿음으로 붙잡고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7:7).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고 배에 올라 타셔서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49절).

제자들은 밤 사경(새벽 3시~6시)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했습니다(49-50절). 제자들이 이처럼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수단, 방법에 사로잡혀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직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찾았더라면,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즉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바로 곁에 도와주러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어리석고 둔해진 마음을 회개하여 깨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50-5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50절). 그리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51절a). 제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해야 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겨야 했고, 예수님이 배에 타시면 바람이 잔잔해질 것을 당연히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안도하기보다 여전히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51절b).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52절).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지만, 제자들은 오직 떡에만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것’에만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마음이 둔해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나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에 갇혀 마음이 둔해지면 도와주러 찾아오신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며 밀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떡만 구하지 말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2. 예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적이 있나요?
3.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를 말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은혜를 잊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밀어냈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3.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FAMILY 나눔

2026년 9월 20일

예수님이 보고계신다

마가복음 6장 47-52절

